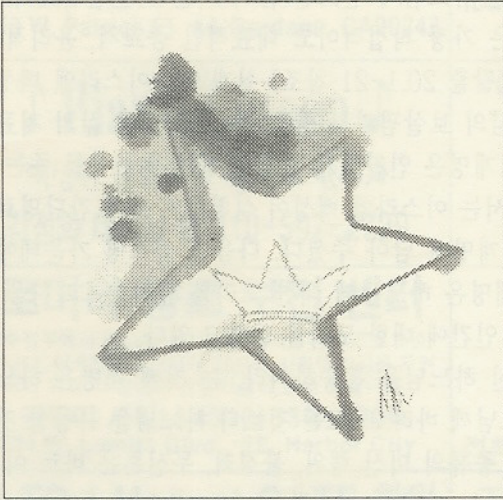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29권 6호(나해) 2009 · 1 · 4

[묵상]



<새해 첫날의 염서>

새 달력에 찍혀 있는 새로운 날짜들이
일제히 웃으며 뛰어와
하얗게 꽃으로 피는 새해 첫날
우리에게 늘 할 말이 많아 잠들지 못하는 바다처럼
오늘도 다시 깨어나라고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한다고
새해는 파도를 철썩이며 오나보다.
우리의 좁디좁은 마음엔 넓은 바다를 들여놓아
넓은 사랑이 출렁이게 하고
얕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을 들여 놓아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하자.
살아 있음의 축복을 함께 끌어안으며
새해엔 우리 더욱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자.
우리의 모든 말들이 향기로워
잊혀지지 않는 시가 되게 하자.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이가 형제라고 할 만큼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위해 준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새해의 새사람이 되리.

◆이해인 수녀 / 시인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사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22. 새로운 삶의 기준들

▶ 구약의 법(율법)과 십계명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으로서만이 아니라 문자로 쓰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의 계시 말씀에 따른 삶의 규범들, 직접적인 윤리적 가르침 등이 그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 인도한 삶의 기준은 율법이였다. 그 중에서 십계명은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종교적, 윤리적 삶의 규범이였다.(탈출 20,1-21 참조)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지표였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법이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하기 쉽게 간단명료한 행동 규범을 십계명에 담아 주셨다. 다음의 십계명 가운데에서 처음 세 가지 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도리를 말하고, 그 다음 일곱 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도리를 말하고 있다.

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배하여라.”는 첫째 계명은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온갖 종류의 미신 행위, 불경죄, 무신론은 바로 이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이다.

②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둘째 계명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할 것을 요구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며 맹세하는 것은 둘째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③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셋째 계명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주일(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낼 것을 명한다. 신자들은 주일에 미사에 참여하고 정신과 육체의 적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 전통적으로 주일은 자선 사업과,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다.

④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넷째 계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낳아 길러 주시는 부모와 웃어른과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공경하라고 명하신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올바른 존경과 감사와 도움을 드려야 한다.

⑤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다섯째 계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임신[受精]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귀하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낙태, 안락사, 자살 행위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⑥ “간음하지 마라.”는 여섯째 계명은 자신의 성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과 성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명한다. 자위, 혼전 성행위, 혼화의 제작과 배포, 동성애 등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⑦ “도둑질을 하지 마라.”는 일곱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빼앗거나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재물과 노동의 결실을 관리하는 데에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있다. (◆CBCK 제공 - 계속)

토 요 특전 미사	(연)한간란, 이무득 바실리사 (생)이제정 요한과 베로니카,준베드로,건미카엘, 김재연 다두와 회복 아네스, 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김광남 사제, 김윤근 사제, 조옥중 사제, 박상대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고준희 제임스,이상현 베드로,이필수,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최복덕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최정모,황만근 베드로,석효정 스테파노, 송봉규 요셉, 김임주 안나, 전귀덕, 허정자 레지나 (생)김수환 추기경, 이호미 엘리사벳, 장정진 베로니카, 조은아 율리아나, 안종연과 루피나 가정, 안 마크, 안 에스티, 권오상 마오로와 순길 체칠리아, 최말저나, 정진영 요한,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이중민 요셉, 이중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대영 로사, 스테판과 마리아, 전영달,전영건,전영기,박제훈 제임스, 전례음악 봉사자들, 이재용 안드레아 가정, 김마틴과 크리스티나 가정, 토런스 남구역가족들, 조옥중 사제,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0,1-6
화답송	◎하느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끝까지 왕하시리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왕들 예물을 바치고, 사바와 세바의 임금들이 봉물을 바치리니.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다 조배하며 만백성이 그이를 섬기리이다.◎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어여뵈여기시고,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리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3,2,3-4,5-6
복음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37	102
봉헌	382	268,220
성체	Above All	281,295
파견	142	142

그분의 별을 찾는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30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 어느 해 겨울 방학에 서울역 앞 양동에서 봉사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동에는 몇 분의 수녀님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님들도 처음에는 그곳 사람들의 텃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취조차 없어졌지만 당시 서울역 앞 양동에는 해방이후 형성된 유곽이 즐비했고 판자를 세워 지은 집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락 여성, 걸인, 고아, 장애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양동을 처음 찾았을 때 '서울에 이런 곳도 있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고 버림받았으며 가난과 병에 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작은 희망조차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수녀님들이 이들의 벗이 되어 함께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양동에서 만난 맹인 할아버지가 한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하느님이 누군지, 정말 계신지도 몰라. 그런데 수녀님들이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사시는 것을 보면 하느님이 계신 것 같아. 수녀님들이 믿는 하느님이니까." 그 당시 양동 사람들에게 수녀님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분의 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도 우주의 끝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많은 별 중에서 그분의 별을 발견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역사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꺾끗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머나먼 동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라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법석을 떨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 있었지만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나요? 오히려 지척에 있던 유다인들은 그분의 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왜 별을 못 보았을까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거나 별을 찾는데 게을러지지 않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손이 닿을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실 곳, 베들레헬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별들 중에 그분의 별을 찾아야합니다. 물론 저절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요 길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생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을 한해 나와 이웃 안에서 그분의 별을 자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원 시몬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4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일입니다.

◆ 병자영성체 : 1월8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시간 : 1월8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설 합동위령미사 : 1월25일(주일). 26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민족명절인 설입니다. 본당은 하루 앞당겨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 고 황인순 안젤라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지난 12월20일 한국에서 선종하신 황인순 안젤라 님(송종두 요한 & 수자 미카엘라 모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를 드리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고요.
- 일시 : 오늘 주일(4일) 낮미사 후 점심마치고 성전에서.

- ◆ 백삼위 성모회 신년하례 모임
● 일시 : 1월10일(토) 오후 6시, 강당
● 대상 : 45~65세 사이의 백삼위 여성교우
● 참석자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490-3358(오루시아), 755-8360(이스테파니)

- ◆ 백삼위 골프회 새해맞이 토너먼트
● 일시 : 1월10일(토), 티오프 오전 9시50분
● 장소 : 알론드라 골프코스(가디나)
● 신청 : 서성용 베드로 회장 ☎(310)686-3587

- ◆ 대전회 스키 캠프
● 일시 : 1월16일(금)~18일(주일)

- 장소 : 빅베어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533-8500

- ◆ 배론청년회 스키 트립
● 일시 : 1월23일(금)~25일(주일)
● 장소 : 빅베어
● 회비 : \$70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당 ☎(310)508-2123

- ◆ St. Margaret Mary School 학부모 초청 오픈하우스
백삼위 성당이 속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스쿨에서 2009 학년도 신입생(K-8)을모집합니다.
● 학부모 초청 오픈하우스 : 2009년 1월25일(주일) 오전 8시~오후 1시.
● 킨더가르텐(K) 어린이는 2009년 12월1일로 만 5세가 되어야 합니다. ☎(310)326-9494

- ◆ 본당 새해 달력(2009년/기축년/나해) 찾아가세요.
● “하늘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한 2009년 본당 달력을 아직 가져가지 않은 교우들은 사무실이나 성물대에서 찾아가십시오. 내용은 프랑스의 유명한 성당과 수도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 한 가정당 1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은 2부 가져가세요.

- ◆ 레지오 마리에 목요일 낮반 Pr. '하늘의 문' 창단
백삼위 레지오 마리에 낮반 프레시디움 '하늘의 문'이 지난 18일부터 창단했습니다.
● 주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본당 프레시디움은 현재 수요일 저녁반인 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모후와 목요일 낮반인 하늘의 문 등 4반 단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 오루시아 : ☎(310)490-3358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4일(주일) : 정충로 안토니오 & 숙경 카타리나 부부의 모친상 연도 감사. 떡과 김밥을 전신자에게 대접합니다.
● 1월11일(주일) : 토런스 남 1반 (떡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고전용	곽효식	김광자	김성일	김운진
	김일선	김주량	김태호	문향엽	박종열	박주현
	배태임	서성용	서희준	송근섭	신대식	엄영희
	오세원	오진자	윤석구	윤희동	이기성	이민상
	이병우	이상규	이석진	이인석	이태옥	장영진
	장정진	조화숙	주태청	지경수	최길주	최상만
	최석원	최진수	홍석철	황철수		
	합계 : \$5,180					
미사헌금 : \$2,715 성탄절 : \$1,432 구유예물 : \$100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곽효식	김광자	김성일	김운진
	김일선	김주량	문향엽	박종열	박주현	서성용
	서희준	오세원	오진자	이기성	이민상	이병우
	이상규	이인석	이일길	이태옥	장영진	장정진
	조화숙	주태청	지경수	최길주	최상만	최진수
	홍석철					
합계 : \$5,670						
감사헌금 : 김옥 윤석구 익명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성탄선물 성경 추가 배포

● 성탄절에 성경선물을 받지 못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1월 11일(주일) 수업시간에 받으십시오.

◆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대상 : 9학년~12학년(주일학교)

● 지도교사 : 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베로니카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오늘 주일(4일)까지 겨울방학 : 수업 없습니다.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주말훈련

● 시간 : 매주 토/일 오전 6시부터

● 장소 : Pennsylvania Av.(PCH~256th St.)

● 누구나 환영, 걷기만해도 됩니다.

☎ 최현찬 안드레아 코치 938-0848, 김철민 요한 740-1502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장애인 후원 ‘일일점심과 차’

● 일 시 : 1월4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메 뉴 : 갈비백반과 따뜻한 국. 1인당 \$10

● 장 소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213)387-3301
(1137 Arapaho St. LA, CA 90006)

◆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 일시 : 1월19일(월)~1월23일(금)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16,15)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숙식포함) *문의 : 김안나(213)272-7404

◆ 성체 신심 세미나

● 일시 : 1월27일~2월2일, 7일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버몬트 + 아담스)

● 지도 : 채창락 요셉신부(대구 산격성당 주임)

● 참가비 : \$30(교재포함) ☎(323)741-4433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지경수 마태오 972-8292 1/16(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1/10(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한길원테 스톨라스티카 218-7824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1/16(금) 오후 7시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틀리아 782-8549	1	박정애 테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 테레사 618-8499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김용상 페트릭 619-7763 1/4(주일) 오후 5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8(목)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1/16(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윤미애 안나 325-6982 1/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박혜선 안젤라 793-7733 1/9(목)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1/9(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1/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흥무 스테파노 377-9989 1/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사도 성 바오로 해’ (2008년 6월 28일~2009년 6월 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로 신자들이 사도 성 바오로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고, 즉,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고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생애에 관하여는 지난 2008년 주보 ‘백삼위 한마당’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백삼위 성당 주보는 앞으로 6개월 남은 ‘바오로 해’ 기간 동안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순서는 성경목차를 따르지 않고, 집필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백삼위 성당 신자들은 매주간 소개하는 바오로 서간을 필독할 것과 그 신학사상을 공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 테살로니카 1·2서 / 박해 속에도 복음 뿌리 내리자. (1)

◇ **테살로니카** : 그리스 중부 테르마이코스 만에 위치한 그리스 최대의 항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통치 시절인 기원 전 315년쯤에 카산드로스 장군이 세운 도시로, 테살로니카라는 도시 이름은 그의 부인 이름을 딴 것입니다. 테살로니카가 위치한 마케도니아 지방이 로마제국의 속주가 되면서 테살로니카는 그 수도가 됩니다. 해상으로뿐 아니라 육로로도 로마에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어서 항구도시로서 또 무역 중심지로서 번창합니다. 자연히 유대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겠지요. 그들은 자체 회당과 옥외 집회장소도 갖추고 유대교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에 갔을 때가 이러했을 것입니다.

◇ **바오로와 테살로니카의 관계** : 바오로는 2차 전도여행(50~52년쯤) 때에 테살로니카에 가지요. 사도행전에 따르면(16장-18장), 바오로는 실라스와 티모테오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해안 도시인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환시를 봅니다. 그래서 바오로 일행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먼저 필리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자 그곳을 떠나 두 번째로 머무른 도시가 테살로니카입니다.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의 유대인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사도 17,2)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몇 사람과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살로니카 교회가 출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바오로 일행은 베로이아로 떠났는데, 테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군중을 선동하고 박해를 계속하는 바람에 바오로는 일행(실라스와 티모테오)과 떨어져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선교한 후 다시 코린토로 간 바오로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냅니다.

◇ **서간의 배경** :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천막 만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필리피와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운 테살로니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곳 신자들에게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박해로 인해 그 도시들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홀로 두고 먼 길을 떠난 아버지가 자식을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티모테오가 테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튼튼히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테살로니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도해도 좋을 정도로 테살로니카 신자들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충고도 함께 담았지요. 이것이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집필된 테살로니카1서로 집필 연도는 50~51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테살로니카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 신자들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작심하고 써 보낸 편지가 테살로니카2서입니다.

(계속 ◆평화신문 /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